



이루라 진안군의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21일 군수실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섭)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루라 의원은 2023년부터 매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진안=유태만 기자



슈퍼와, 김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포인트 후원

김제시는 21일 지역 유통업체 슈퍼와(대표 강신태)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 원 상당의 생활지원 포인트를 지원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매월 충전되는 생활지원 포인트를 활용해 슈퍼와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슈퍼와 강신태 대표는 이번 후원을 비롯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 기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지난 20일 의정실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김형섭)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업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기 의장을 비롯한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의 주요 현안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대강면, 폭염 대비 1일 1가구 사업 추진

남원시 대강면은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비 1일 1가구 사업을 추진, 각 가정에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가정의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에어컨과 선풍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살폈다. 특히 노후화된 선풍기나 냉방기기가 부족한 가정에는 기부받은 선풍기를 전달하고,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해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더운 여름,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친절봉사회, 정읍 수성근린공원서
어르신 600여명 대상 삼계탕 나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21일 오전, 정읍시 수성동 수성근린공원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친절봉사회(회장 임규래)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유영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 급식봉사단과 함께 정읍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친봉회 임규래 회장은 이날 유영준 이사장에게 회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수건 500매를 전달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정읍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초청돼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받았다. 이른 새벽부터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사)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 회원들은 닭 손질과 각종 보양재 준비, 조리까지 맡아 정성을 다해 삼계탕을 끓였고, 친절봉사회 회원들은 배식과 안내, 자리 정리 등을 담당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식사를 전했다. 밥으로 젖은 옷차림에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정말 고맙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보양식을 먹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든 것은 문화공연이었다. 오전 11시부터 초청가수 강민수의 흥겨운 트로트 공연과 색소폰 연주자 정정하의 연주가 이어지며 즉석 노래교실이 열렸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때나



마더위를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곳곳에서 환한 웃음과 박사가 터져 나와 행사장은 작은 축제의 장이 됐다. 임규래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정읍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삼계탕 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친절봉사회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매년 여름철 삼계탕 나눔과 겨울철 연탄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전주와 익산, 부안, 순창 등 전북 각지에 거주하는 친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배식과 안내, 환경 정리 등에 힘을 보태며 지역을 넘어선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만호 기자

하림, 전북대·바이오드와 가금 방역 체계 고도화

상호 협약 맺고 글로벌 위생 표준 구축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주)바이오드와 손잡고 글로벌 수준의 위생 방역 체계 구축과 가금 품질 차별화를 위한 2단계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하림은 최근 익산 본사에서 정호석 대표이사(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 장형관 소장, 바이오드 강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위생 표준 구축 및 병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년간 추진된 1단계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판 삼아, 향후 3년간 전개될 2단계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림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원종계 농장의 글로벌 위생 표준 방역 체계 수립을 비롯해 하림 병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 계약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이슈 대응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1단계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림은 1단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고도화된 2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식품 안전성과 농가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北 김정은, 두 국가론으로 노선 전환”… 제12회 열린통일강좌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지부 등 공동주최
김동식 국정원 대북전략연구원 특별강연

제12회 열린통일강좌가 최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연구원 박사가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황해도 출신으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 1990년 처음 남파됐다. 이후 1995년 재차 남파됐다가 충남 부여 정각사에서 안기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그는 이후 전향해 기무사령부 분석관, 국가정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김 박사는 이날 자신이 직접 수행했던 대남 공작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남파 경험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1990년 남파 당시 임무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거물간첩 이선실을 데리고 복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운동권 인사를 포섭해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또한, 김 박사는 공작원 선발 과정에 대해 “고등학교 2학

전주논리클럽, 전주시에 여름이불 20채 기탁

전주논리클럽(회장 이상철)이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논리클럽은 21일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실을 방문해 무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여름이불 20채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냉방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기탁된 여름이불 20채 중 10채는 이상철 논리클럽 회장과 회원들이 직접 지원 대상 노인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응원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피지·파푸아뉴기니 초청 새마을교육 입교식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립)는 21일 경기 성남시 중안회에서 2026 피지·파푸아뉴기니 초청 새마을교육 입교식을 열고 9박 10일간의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과 현지 새마을지도자의 사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입교식에는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초청된 연수생 40명이 참석했으며, 공무원과 마을지도자가 함께 참여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 개론을 비롯해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사업일지 작성 등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을 받는다. 또한 새마을역사관 관람과 현장 견학, 분임토의, 액션플랜 수립 등을 통해 각국의 지역 여건에 맞는 새마을운동 적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전은, 전주 다문화 아동 여름방학 캠프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일)이 전주시 다문화 아동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름방학 캠프 지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21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전주시 다문화 아동 여름방학 캠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다문화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아동들에게 금융교육과 진로·AI 특강, 나의 꿈 브랜딩 협동 프로그램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성공 위한 관리 진행

남원소방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남원 지리산 유스캠프 등에서 열리는 ‘제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관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캠프에는 소방(329명), 경찰(97명), 해양경찰(50명), 군인(4명) 등 제복공무원 자녀 총 480명이 참가한다. 남원소방서는 대규모 인원이 남원 관내 숙박시설 및 체험 시설에 머무는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준비 단계부터 전 직원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우선 선제적 예방 조치로 주요 행사장인 지리산유스캠프 등 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한 화재안전조사를 선행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다. 또한 화재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할 119안전센터 출동대의 각 팀이 순환하며 행사장 현지 적응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효율적인 인명 대피 동선 파악 및 신속한 구조 체계 구축을 마쳤다. 특히 21일에는 남원소방서장이 직접 지리산유스캠프 등 행사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대비 실태를 최종 점검했다. 남철희 서장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캠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성공적인 캠프 운영을 위해 행사 기간 주요 행사장에 소방캠프차와 구급차를 근접 배치하고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밀착형 안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